

안전 지킴이 CCTV...5대 범죄 확 줄었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광주 지난해 1만5417건 발생...전년보다 18% 감소

강도, 2년만에 절반 ‘뚝’...첨단장비·시민의식 큰 몫

“당직이 두번 도는 동안 사건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형사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최근 광주북부경찰서 한 형사가 너털웃음을 웃었다. 하룻밤새 10여건이 들어오던 사건이 단 1건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많고 많던 절도·폭력도 없었던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만5417건으로, 전년보다 18.1%(3413건) 감소했다.

5대 범죄는 해마다 감소세다. 2012년 2만5242건에서 2013년 2만2569건, 2014년 2만1492건, 2015년 1만8830건으로 줄어 들었다. 최근 5년세 39%인 9825건이 감소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2012년 27건에서 2014년 19건, 지난해 17건으로 5년세 37%(10건) 감소했다. 2012년 103건 발생했던 강도 사건은 2년만인 2014년 절반가량 줄어 53건, 2016년 47건으로 54%(56건) 줄어 들었다. 강간·추행은 2012년 862건에서 2016년 701건으로 18.6%(161건) 감소했다.

하루 30여건이 훌쩍 넘었던 절도와 폭력 사건은 하루 20건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절도는 2012년 1만2660건에서 2014년 1

만393건, 2015년 8425건, 지난해 6052건으로 52.1%(6608건) 급감했다. 하루 35건 발생하던 절도 사건이 5년사이에 하루 17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폭력 사건도 2012년 1만1592건에서 2014년 1만194건, 2015년 9593건, 지난해 8600건으로 25.8%(2992건) 감소했다. 하루 32건에서 같은 기간 24건으로 줄어든 셈이다.

경찰은 5대 범죄 감소 요인에 대해 폐쇄회로(CCTV)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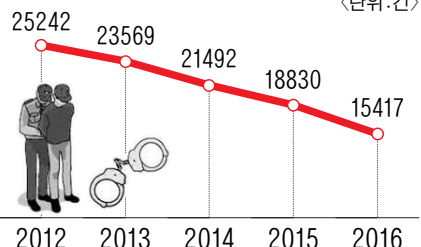
광주시에 따르면 CCTV는 2014년 2976개에서 2015년 3246개, 지난해 3763대로 2년사이에 787대가 추가 설치됐다. 그만큼 동네 곳곳에 CCTV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신고의식도 높아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는 전국에서 범죄 감소율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의미”라며 “동네마다 CCTV가 설치되고, 시민들의 신고도 늘어난 것이 5대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각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 캠페인과 범죄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치안활동도 범죄 발생을 줄이는데 한 몫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최근 5년간 광주 5대 범죄 현황



■ 광주 5대 범죄 유형별 현황

유형	2012년	2016년	증감
살인	27	17	-10
강도	103	47	-56
강간·추행	862	701	-161
절도	12,660	6052	-6608
폭력	11,592	8600	-2992



‘봄’ 위에 앉은 ‘겨울’

우러진 흥매화를 촬영하고 있다.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 꽃샘 추위가 찾아온 7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한 시민이 하얀 눈과 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해질 18:34
날출 14:14
몰짐 03:37

오늘부터 풀려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1/8	보성	구름 많음	-3/8
목포	구름 많음	1/8	순천	구름 많음	-1/9
여수	구름 많음	-1/8	영광	구름 많음	-2/7
나주	구름 많음	-3/8	진도	구름 많음	2/7
완도	구름 많음	1/9	전주	구름 많음	-2/7
구례	구름 많음	-4/7	군산	구름 많음	-1/8
강진	구름 많음	-2/9	남원	구름 많음	-4/7
해남	구름 많음	-2/8	축산도	구름 많음	1/9
장성	구름 많음	-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5~2.5
	면바다	서~북서	1.5~2.5	서~북서	2.0~4.0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5~2.5	서~북서	2.0~3.0
남해	면바다(서)	서~북서	1.5~3.0	서~북서	2.0~4.0
	면바다(동)	서~북서	1.5~3.0	서~북서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18	10:50	16:34	23:04
여수	12:35	06:12	18:36	
	—:—			

◇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2/10	0/13	0/15	2/15	2/15	3/14	3/12

◇ 생활지수

	관심
	보통
	낮음

‘우레탄 철거비 감사 갈등’ 법정으로

광산구, 광주시 징계 거부...헌재에 심판 청구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 집행 감사 처분”을 둘러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재난안전기금 사용에 따른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및 한계와 관련한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다.

광산구는 “학교 우레탄 철거는 단순한 학교시설물 문제가 아닌 구민 복리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청 소관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가 안전을 고려, 학교시설물 철거에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한 행위는 적법하며 징계는 자치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난기금 투입

의 적법성과 징계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월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지난해 8월 재난안전기금 1231만7000원을 부적절하게 비아중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구청장과 구청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사업에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시 감사위원회의 입장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시 감사위원회의 공식 기각 통보를 받은 뒤 오는 4월3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스로 어떤 범위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